

전남지방 민가의 안채 평면형 연구

김지민

(목포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주제어 : 전남지방, 민가, 평면유형, 마래, 정지방

1. 서론

1-1. 연구 목적

전통주거는 과거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습에 따라 건립되었다. 즉 전통민가는 지역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된 정주공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에 완성, 정착된 전남지방 민가의 정주공간 파악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세가지가 본 연구의 최종 목표다.

첫째, 전남지방 민가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평면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둘째, 전남지방내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집을 지었나, 즉 유형화 작업을 통해 대표성이 있는 평면형을 찾는다.

셋째, 전남지방 민가의 평면구성 요소 중 어떤 것이 키워드인가, 즉 전남지방의 민가에서 어떤실이 평면구성에서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전라남도다. 다만 광주광역시도 과거 같은 생활문화권이었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현 행정구역상으로 총 22개 시·군이 된다.¹⁾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가옥은 모두 988채가 된다. 이 중 855채는 연구자가 직접 현지 조사에 의한 것²⁾이고 나머지 133채는 기존 자료³⁾를 참고한 것이다.

대상 가옥의 건축시기는 19C초부터 20C초사이로 약 1C에 걸쳐 건립된 것이다.

연구내용은 민가의 안채 평면형식이다. 평면형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으로 그간 민가 연구의 핵심으로 자리를 했다. 기타 부속채, 구조와 재료 등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1)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옛 광산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20C초에 형성된 목포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 시기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이다. 조사 가옥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 이미 발표된 것도 있고 아직 미발표 상태로 있는 것도 있다.

- 「나주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8
-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 박물관, 1989
-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1
-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3
- 「구례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4
- 「장흥 방촌」, 장흥군, 1994
- 「탐진댐 수물지역내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8

- 3) · 「나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전남대, 1985 - 22가옥
 ·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 1988 - 16가옥
 · 「보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2 - 17가옥
 · 「순천시의 문화유적」, 순천대, 1992 - 22가옥
 ·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 1993 - 21가옥
 ·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3 - 20가옥
 ·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5 - 15가옥

※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표본 조사된 자료를 구성원리 파악과 함께 분류 등 유형화 작업으로 진행했다.

2. 평면형의 유형화

2-1. 평면구성 키워드

전남지방 민가(안채)의 실 구성은 작은집은 3-4실, 다소 규모가 큰 집은 5-6실 정도로 이루어진다. 실의 내용은 정지(부엌), 큰방(안방), 정지방, 작은방 1-2개, 그리고 수장공간인 마래(도장방, 마루방) 등이다. 이 실들이 가옥규모 또는 지역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전남지방 민가(안채)의 가옥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실 구성 내용이다.

- 정지+방 1개
- 정지+큰방+마래
- 정지+큰방+작은방 1개
- 정지+큰방+작은방 2개
- 정지+큰방+마래+정지방(또는 작은방 1개)
- 정지+큰방+마래+정지방+작은방 1개
- 정지+큰방+마래+정지방+작은방 1개+외양간

각 실들의 기능은 충청도나 경상도 등 다른 지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로 수장기능을 갖는 '마래'는 평면구성의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전남 민가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 실의 위치와 성격은 같은 전남권내에서도 다르다. 또한 작은방 성격의 '정지방'도 지역별로 그 위치가 달라 이 지역 민가 구성의 한 몫을 하고 있다.

<마래>

전남지방 민가에 있어 '마래'는 안채 내부에 설치되는 매우 중요한 실이다. 행랑채 등의 부속채에는 헛간 등만이 있을 뿐 곡식 등 주요 물품보관 장소인 마래는 반드시 안채에 설치된다. 바닥구조는 대부분 마루를 깔았으나 규모가 작은 가옥에서는 흙바닥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 형태는 경작된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놓여진다.(하의도 대리마을 어느 가옥의 큰 독은 중앙부 직경이 70cm, 높이가 99cm이다.) 이외 각종 집안 살림도구(바구니, 상, 돗자리, 그릇 등)도 보관된다.

마래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곳에 따라

'마루방', '대청' 등으로도 부른다. 한편 전남 구례와 장흥 등 비교적 산간지역에서는 '도장방'이라고 한다. 벼 도(稻)에서 나온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의 충칭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곡식창고란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 명칭은 강원도 삼척 등 태백산맥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서남해 도서지역과 인근 연안 내륙지역 등 전남의 여러곳에서는 보편적으로 '마래', '마리', '말래' 등으로 호칭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이곳이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방을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마래 상부의 상량 위에는 집의 수호신인 성주가 모셔져 있다. 작은 대나무 가지에 한지를 접어 꿰어달고 또 거기에 마른 명태를 달아 놓기도 한다. 새로 집을 지었거나 또는 새로 이사했을 때 이 성주신을 모셔야만이 집안이 순탄하고 풍요로워진다. 이 성주신을 모시는 의례가 곧 '성주올리기'라는 곳이다. 이런 의례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세계관이 얽힌 문화공간임을 보여준다.⁴⁾

이 실의 전·후면에는 '수장+제례의식' 기능에 부합되는 폐쇄적인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뒷문의 경우는 모든 가옥에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정지방>

이 방은 큰방과 대비되는 일종의 작은방이다. 이

4) 조성기는 그의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라는 학위논문(1985)에서 호남지역 민가의 안채에 마래(수장공간)가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랑채(행랑채 또는 부속채로 이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면적으로는 '민중의 절박한 생존과 직결되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즉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내륙은 물론 도서지역까지 극히 소농경제의 가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행랑채를 갖고있다. 즉 행랑채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안채에 수장공간이 들어서는 것은 당시 이 지방에서 곡식의 저장공간을 생명력이 있는 중요공간으로 여겨 집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방(침실)을 드리는 것처럼 마래를 안채에 설치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제례의 공간, 그리고 집을 수호하는 성주독의 설치 등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곳은 다른지방의 행랑채에 설치되는 수장공간(광)과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방은 전남에서도 영산강유역의 평야지대 민가와 서해 도서(특히 신안, 진도군 등) 및 그 연안지역(영광, 함평, 강진, 해남 등)에서 많이 보인다. 전남의 북부와 동부(순천, 여수 등)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방의 위치는 명칭이 전하듯이 정지(부엌) 앞쪽에 있다.

나주와 무안 등 특히 영산강유역의 내륙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가옥은 방이 3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정지 앞쪽에 온다. 크기는 다른 방에 비해 작다.

한편 서해도서지역의 민가에서는 안방 다음의 2번째 방으로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리한다. 아궁이 관리도 정지에서 안방과 함께 하는 이점이 있다. 특히 호칭도 집 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모방'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완도 등 남해도서에서 이 방이 정지 측면에 가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이란 명칭은 서남해도서 민가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고유 명칭이다.

그림1은 남해상의 소안도 민가 개념도로서 모방이란 명칭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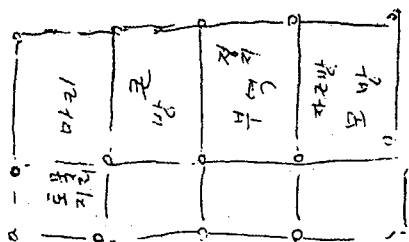


그림1. 안채 개념도
(1999년 소안도 동진마을 이장 그림)

전남지방에서 유독 발달된 정지 앞쪽의 방은 다른 지방 민가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이 있는 방이다.

2-2. 평면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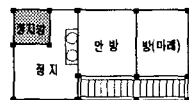
조사가옥 총 988채중 평면 분류가 가능한 882채를 실 구성 중심⁵⁾으로 유형화 한 결과 표1과 같이 모두 12타입의 평면형이 나왔다. 가급적 많은 타입을 도출하고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비록 작은 수의 출현(4실형 VI, 5실형 II타입 등)이라도 분류작업에 포함시켰다. 기타는 분류 가옥 중에서도 실위치가 매우 불규칙하고 출현 빈도도 지

역별로 1~2채 정도만 보이는 가옥들이다.

각 실들의 규모는 보통 전면 1칸 정도이나 규모가 큰 가옥은 정지만 1.5~2칸인 경우도 있다. 또한 서해 도서지방에서는 마래가 2칸으로 매우 넓게 자리한 경우도 있다. 주간거리는 보통 210~280cm 정도로 가옥규모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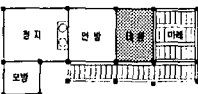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평면 중 몇몇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어 주목이 간다.

<기타1>



- 장성군 지역
- 정지방이 정지 뒷쪽에 위치

<기타2>



- 신안군 도서
- 안방과 마래사이 대청설치

<기타3>



- 강진·장흥군 지역
- 작은방 위로 별도 진고방 설치 (마래에서 출입)

<기타4>



- 해남군지역
- 정지 측면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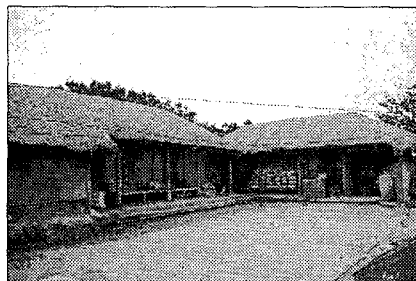


그림2. 전형적인 전남민가의 구성
(안채와 행랑채의 'ㄱ'자형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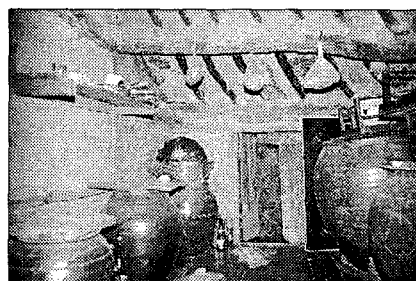


그림3. 안채의 '마래' 내부

5) 본 연구는 실의 위치, 즉 실구성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이에 의한 구분은 하지 않았다.

표1. 평면유형의 지역별 분포

| 평면유형 | 시·군 | | 나주시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신안군 | 진도군 | 완도군 | 영암군 | 강진군 | 해남군 | 장흥군 | 보성군 | 고흥군 |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구례군 | 곡성군 | 화순군 | 담양군 | 장성군 | 광주시 | 계 | |
|------|-----|--|------------|------------|------------|------------|--------------|-------------|-------------|------------|-------------|-------------|-------------|------------|-------------|-------------|-------------|-------------|-------------|-------------|-------------|------------|------------|-------------|--------------|--------------|
| | 3실형 | | | 9/ 20.9 | 1/ 3.8 | 3/ 11.1 | 2/ 15.3 | - | - | - | 2/ 14.2 | 6/ 16.6 | - | - | 3/ 20 | 6/ 17.1 | 24/ 39.3 | 5/ 11.6 | 25/ 45.4 | - | 12/ 37.5 | 4/ 15.3 | - | 2/ 6.8 | 8/ 27.5 | 112/ 12.7 |
| | | | 4/ 9.3 | 2/ 7.6 | 4/ 14.8 | 2/ 15.3 | 15/ 8 | - | 6/ 10.9 | - | - | 5/ 11.9 | 4/ 8.5 | 2/ 13.3 | 4/ 11.4 | - | 1/ 2.3 | 4/ 7.2 | 7/ 35 | 2/ 8.2 | - | - | - | 5/ 17.2 | 67/ 7.6 | |
| 4실형 | | | 5/ 11.6 | 6/ 23 | 8/ 29.6 | 6/ 46.1 | 106/ 56.9 | 22/ 70.9 | 12/ 21.8 | 3/ 21.4 | 2/ 5.5 | 9/ 21.4 | - | - | - | - | - | - | - | - | - | - | 4/ 13.7 | 10/ 34.4 | 193/ 21.9 | |
| | | | 2/ 4.6 | - | - | - | 22/ 11.8 | 5/ 16 | 35/ 63.6 | - | 2/ 5.5 | 15/ 35.7 | 3/ 6.3 | - | 3/ 8.5 | 2/ 3.2 | 5/ 11.6 | - | - | - | 2/ 7.6 | - | - | - | 96/ 10.9 | |
| | | | 4/ 9.3 | 3/ 11.5 | 3/ 11.1 | - | - | - | 1/ 1.8 | 7/ 50 | 14/ 38.8 | 10/ 23.8 | 19/ 40.4 | 7/ 46.6 | 20/ 57.1 | 21/ 34.4 | 26/ 60.4 | 26/ 47.2 | 5/ 25 | 13/ 40.6 | 11/ 42.3 | 9/ 69.2 | 4/ 13.7 | - | 203/ 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3 | - | - | - | 3/ 9.3 | - | - | - | - | - | 16/ 1.8 |
| | | | - | - | - | - | - | - | - | - | 3/ 8.3 | - | 13/ 27.6 | - | - | - | - | - | 8/ 40 | 2/ 6.2 | 6/ 23 | 4/ 30.7 | 2/ 6.8 | - | 38/ 4.3 | |
| | | | 5/ 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8 | - | 7/ 0.8 | |
| 5실형 | | | 9/ 20.9 | 8/ 30.7 | - | - | - | 1/ 1.8 | - | 4/ 11.0 | - | 6/ 12.7 | - | - | - | - | - | - | - | - | - | - | 3/ 10.3 | 31/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7 | - | - | - | - | - | 3/ 11.5 | - | - | - | - | 5/ 0.6 | |

| 평면유형 | 시·군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주시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신안군 | 진도군 | 완도군 | 영암군 | 강진군 | 해남군 | 장흥군 | 보성군 | 고흥군 |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 구례군 | 곡성군 | 화순군 | 담양군 | 장성군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6실형 | | | | | | | | | | | | | | | | | | | | | | | 27/1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5 | 9/33.3 | 1/7.6 | - | - | - | 1/7.1 | - | - | - | 3/20 | - | - | - | - | - | - | - | - | - | - | 17/1.9 |
| 기타 | 5/11.6 | 3/11.5 | - | 2/15.3 | 16/8.6 | 4/12.9 | - | 2/14.2 | 5/13.8 | 3/7.1 | 2/4.2 | - | - | 2/3.2 | 7/16.2 | - | - | 1/3.1 | - | - | 15/51.7 | 3/10.3 | 70/7.9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가옥수 | 53 | 30 | 30 | 20 | 202 | 37 | 57 | 18 | 45 | 48 | 55 | 17 | 38 | 70 | 49 | 55 | 21 | 36 | 33 | 15 | 29 | 30 | 988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가옥수 | 43 | 26 | 27 | 13 | 186 | 31 | 55 | 15 | 36 | 42 | 47 | 15 | 35 | 62 | 44 | 55 | 20 | 33 | 26 | 13 | 29 | 29 | 882 | | | | | | | | | | | | | | | | | | | | | | |

* 가옥수/비율(%)

* 분류가옥 표시

| | |
|----------|--|
| 10% 미만 | |
| 10 ~ 19% | |
| 20 ~ 29% | |
| 30 ~ 39% | |
| 40% 이상 | |

3. 지역별 평면형 분포와 특성

한반도에 있어 일반 서민이 살던 소농가의 집은 지역적으로 평면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와 환경이 지역에 맞는 정주공간을 형성시켰으며, 그 공간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다.

전남의 경우 지역별로 특징적인 건축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지역은 전국 도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 도서지역, 남도의 첫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대, 그리고 소백산맥의 지맥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일부 산악지대 등이 우선 자연환경의 큰 획을 긋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방식도 그를 따라가고 있다. 한편 민가의 형성과 발달도 그 범주 내에서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3-1. 영산강 유역과 서남해 연안지역

(1) 지역 환경

전남지방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북부는 산지가 많고 서남부는 평지와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다.

서남부 중심에는 호남의 대표적 큰 강인 영산강이 있다.

담양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광주와 나주, 무안, 영암 등을 거쳐 목포 앞바다로 흘러가는 영산강 주변으로는 일찍부터 부족사회가 발달했었고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는 나주가 영산강의 핵심도시로 자리하였다. 즉 나주는 영산강 수계의 중하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평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정착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으며, 근대화 이전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강했다. 특히 대외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는 영산강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양호한 기후조건이 결합됨으로써 일찍부터 전라도의 중심지로 성장했었다. 따라서 넓은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조성된 마을과 민가는 전남의 상징성과 함께 대표성이 있는 이 지역 정주공간이 아닌가 한다.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지역 등은 영산강의 내륙문화권에 속해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바다와도 접해있어 해양문화권에도 속해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란이후 도서지방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섬 문화를 일구어 냈는데 주거문화에서도 서로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평면 특성

이 지역의 평면은 다른 곳과 달리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 3실, 4실, 5-6실 민가 등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평면이 나타난다. 넓은 평야 지역과 함께 무안, 해남 반도 등 여러 지형 조건과 해양문화계가 함께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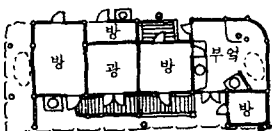
이 지역의 평면구성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지 전면에 있는 정지방(작은방)이다. 5-6실이 있는 다소 규모가 큰 민가에서는 이 방이 꼭 있고 4실 민가의 경우도 많은 가옥에서 볼 수 있다. <표1. 4실형-I, 5실형-I>

정지방은 안채에 있어 보통 마지막으로 꾸며지는 방으로 크기도 매우 작다. 즉 규모가 다소 큰 민가의 경우 세 번째 방이 되는 셈이다. 아궁이 시설은 정지 쪽에 되어 있어 큰 방과 함께 관리하기도 용이하다. 이 방은 전남 동부지역을 제외하고 영산강 평야지대로부터 도서지방(신안군, 진도군)에까지 보편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전남 민가의 특징 있는 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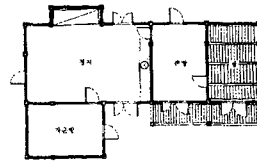
정지, 안방, 마래, 작은방(건너방) 순으로 꾸며진 4실형 평면 역시 이 지역의 보편적인 평면형이다. <표1. 4실형-III> 특히 보통 마루널이 깔려지는 마래는 곡식을 보관하는 수장 공간으로써 또는 하절기의 생활공간으로써 꽤 비중 있는 살림공간이다. 이곳 전면에는 반드시 문이 있는데 대개 판장문내지는 띠살문이 설치된다. 판장문일 경우에는 특히 수장공간으로써의 의미가 강해진다. 마래의 규모는 그 집의 규모와 경제력을 살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무안, 함평 등지에서는 보통 다른 곳에서는 행랑채 등에 있는 외양간이 건너방 앞쪽에 설치되어 주목이 간다. <표1. 6실형-II> 이 지역에서는 건너방을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방 옆으로 독자적인 툇마루를 갖는 가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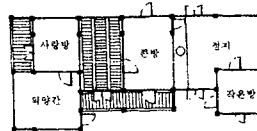
장흥, 강진의 산간 지역에서는 구래 등 북부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한쪽 겹집구조(위-도장방, 아래-작은방)도 보이고 <표1. 4실형-V> 또한 마래쪽에서 출입하는 별도의 진고방을 작은방 위로 둔 가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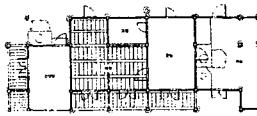
· 나주시 남평면 우산리 2구
· 18C 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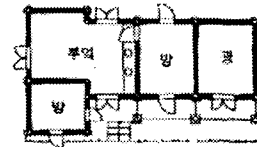
· 함평군 손불면 대천리(수문마을)
· 19C 초 건립



·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벽유마을)
· 19C 중 건립



· 나주시 다시면 신흥리 156
· 1868년 건립



· 영광군 군남면 월흥리 204번지
· 19C 중 건립

그림4. 평면 사례

<사례 연구>

- 이씨 가옥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운곡동 198-22
- 실측조사 : 1987년 (목포대 김지민)

나주시 운곡동의 '텃골'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위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이다. 현재 안채(19평)와 측간채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의 건축연대는 약 19세기초에서 중엽 정도로 추정된다. 기단에서부터 지붕에까지 건축당시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당시의 가옥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되고 있다. 이 가옥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안채 앞으로 방아실채와 사랑채가 있었던 비교적 큰 규모의 중농가였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정면 5간의 초가집이다.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1칸 규모로 건너방, 마래, 안방 순으로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지를 뒤편까지 하여 2칸 규모로 넓게 꾸몄다. 또한 정지 앞 모퉁이에도 정지방을 1칸 규모로 드렸다. 툇마루는 안방과 마래 앞으로만 시설하고 건너방 앞은 토방으로 꾸몄다.

기단은 막돌허튼층쌓기로 높게 축조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거칠게 마감한 방주를 썼다. 가구는 2고주 5랑 형식으로 도리는 통나무를 대강 다듬은 원형도리이다. 천장은 안방까지 모두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난 연등천장이다.

창호는 부엌과 마래의 판장문을 제외하고 모두 죽살문이다. 안방과 마래 등에는 시렁과 헛대 등의 장치물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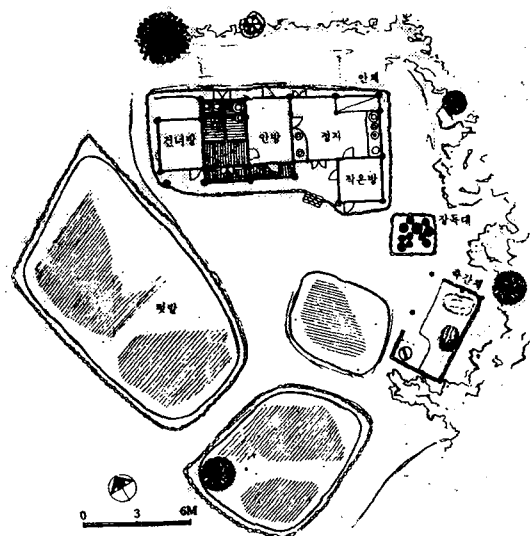


그림5. 전남 나주시 운곡동 이씨 가옥

3-2. 서남해 도서지역

(1) 지역 환경

제주 근해로부터 완도와 진도, 신안군도, 동지나해를 지나 중국대륙으로 이어지는 이곳 서남해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⁶⁾ 동양문화의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왔다. 도서 수는 전남 지역만 무려 265여 개의 유인도와 1,689개의 무인도가 있어 전국도서 3,125개의 62.54%가 전남에 있다. 섬들만 모아서 군이 된 곳도 세 군데(신안군, 진도군, 완도군)나 있다. 이 지역은 임란 이후 인근 내륙지방에서 유입한 이주민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곳이다.

17·18세기에 이주민들은 섬에 집중적으로 유입하였다. 즉 16세기말 전쟁으로 인해 유리된 流移民들이 정착지를 찾아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섬

에 유입한 것이다. 섬에 유입한 이주민들은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마을의 입지적 조건은 주로 포구, 경작지, 염전, 제방 설치가 가능한 곳이었다. 移住民들의 入島經路를 살펴보면, <南海→西海>로의 유입이 주된 경향이었고, 반대로 <西海→南海>로 유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서지방의 행정관할지를 설정할 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서 이주민들은 해남·영암·강진·고흥·보성 등 연해를 출발지 혹은 경유지로 하여 해로를 따라 섬으로 유입하였다. 入島前 거주지로는 해남이 26%로 가장 많았고 강진 21%, 장흥 15% 순이었다.⁷⁾

전반적으로 조선후기 도서주거문화의 형성체계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왜구의 침입과 정부의 空島정책으로 인해 한때 비워있던 섬에 17-18세기경 다시 새로운 入島祖들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성(Insularity), 즉 바다에 둘러싸인 격리, 해양성 자연환경, 제한된 자원, 협소한 영토 등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입도자들의 고향문화가 환경이 다른 도서에 어떻게 수용되고 또는 변용되었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괄적으로 도서문화는 이주된 문화라는 점, 그러나 한 문화가 상이한 도서환경으로 이전될 때 이주된 문화는 새로운 거주지의 구속력에 대처해 나가기에 용이한 형태로 변모해 간다는 사실이 도서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2) 평면 특성

이 지역의 평면은 크게 4가지⁸⁾ 유형으로 명료하게 나타난다. 특히 서해도서(신안군 지역)와 남해도서(완도군 지역)간에도 차이가 있다. 각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I 형(정지+안방+마래)

규모가 작은 3실 민가에 있어 정지, 안방, 마래가 나란히 드러지는 ‘一’자형 유형이다. 내륙에서 보이는 마래 대신 방(침실)이 설치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표1. 3실형-II>

6) 서남해 도서지역에는 패총·지석묘 등의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선사유적이 발굴 조사되어 아주 옛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 「신안군의 문화유적」(1987)과 「완도군의 문화유적」(1995) 참조

7) 김경옥,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32, 1999

8) ‘서남해 도서지역’만 특별히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이 지역의 평면이 도서 또는 도서群별로 확연히 드러나 단순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다.

② 제Ⅱ형(정지+안방+마래+모방)

정지, 안방, 마래, 모방(작은방)의 4실로 이루어진 유형으로 모방이 정지 전면 모퉁이에 위치한다. 이 경우 많은 가옥에서 모방이 전면의 퇴주선보다 약 1m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안방, 정지, 모방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집중)되어 있고 서로의 동선도 짧다. 서남해 도서지역 중에서 특히 서해 쪽인 신안군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유형은 서남해 도서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해 도서의 민가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표1. 4실형-I>

③ 제Ⅲ형(정지+안방+마래+모방+갓방+외양간)

제Ⅱ형 형식에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 외양간(헛간)과 갓방이 겹집형식으로 추가되어 실이 4실에서 6실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간혹 외양간이 전면에 오기도 한다.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중농가 일수록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신안군 도서에서 주로 보이고(흑산도지역 제외) 완도군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표1. 6실형-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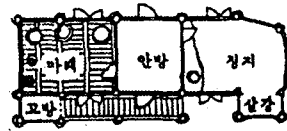
④ 제Ⅳ형(정지+안방+마래+모방)

모방(작은방)을 정지 전면에 두지 않고 완전히 측면에 배치한 역시 4실 구조의 ‘-’자형 형식이다. 제Ⅱ형의 가옥과 달리 모방의 독립성이 강하다. 출입도 전면의 뒷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흑산도 지역과 청산·보길도 등 남해상의 가옥(완도군 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신안군 지역 도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Ⅱ형보다 적게 나타난다. <표1. 4실형-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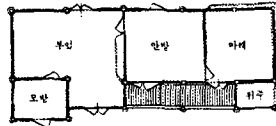
이상의 4가지 평면유형 외에 큰방과 마래사이에 ‘대청’이라고 부르는 마루방이 있는 가옥도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간혹 보인다.

도서지역의 평면유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그간 전남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민가의 기본 형으로 알려진 정지, 큰방, 대청(마래), 작은방 순으로 배치되는 ‘-’자형 홑집평면이 이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4실형에서 방 하나가 더 드러지는 경우 표1의 I번과 II번처럼 정지 앞이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마래 위쪽으로는 어떠한 실도 들어서는 않는다. 이는 3실형이나 규모가 큰 6실형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서지방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은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가옥의 머리에 해당하는 마래 위로 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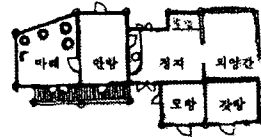
설치한다는 것을 위계상(상·하의 공간적 질서)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극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다.⁹⁾ 결국 도서지방의 ‘마래’공간은 내륙지방보다 강한 민속 신앙적 혈연주의, 열악한 도서 농업환경에서 곡식이 갖는 상징성 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근 내륙지방에서 보이는 마래방의 의미는 도서지역보다 기능이나 상징성 등이 상당히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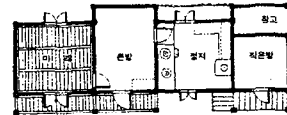
· 신안군 하의면 대리
· 1797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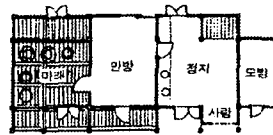
· 진도군 군내면 죽전리 1022
· 19C 말 건립



·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20(단고마을)
· 1861년 건립



·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703-1
· 19C 초 건립



· 신안군 흑산면 진리 921
· 1856년 건립

그림6. 평면 사례

<사례 연구>

- 제갈씨 가옥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261
 - 실측조사 : 1988년 (목포대 김지민)
- 본 가옥의 건축연대는 안채에 “道光三年癸未十月…”이란 상량문이 있으므로 1823년(순조 23)에

9) 현지 조사 과정에서 마을 노인들의 고증과 연구자의 종합 판단에 의한 결론이다.

건축된 집임이 확인되었다. 안채의 좌향은 亥坐巳向이며 안채 전면 좌측으로는 사랑채와 측간(변소)채가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의 전퇴 초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마래 2칸, 안방 1칸, 정지 2칸을 나란히 배치하고 우측 끝간 정지 앞으로는 1칸 모방을 들였다. 전퇴에는 툇마루를 시설하고 그 우측 끝으로는 고방(뒤주)을 설치하였다. 마래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전면 퇴주 초석만은 다듬은 방형) 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와 퇴보로 결구한 4량 구조이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흑벽마감이다.

사랑채(행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건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각 1칸씩 외양간·정지·사랑방·광 순으로 배치하고 전퇴에는 사랑방과 방 전면으로만 툇마루를 시설하였다. 구조는 4량형식의 민도리집으로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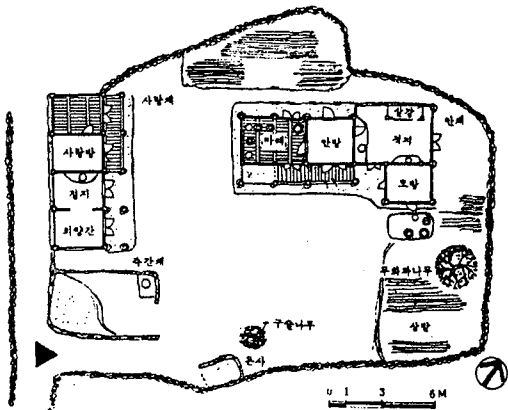


그림7. 전남 신안군 하의면 제갈씨 가옥

3-3. 동남부지역

(1) 지역 환경

이 지역은 전남의 순천권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경상남도와 구분되며 서쪽으로는 보성강이 있어 전남의 서부내륙쪽과 구분된다. 북쪽으로는 고산지인 소백산맥(지리산)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흥반도, 여수반도 등 바다와 면하고 있다. 현 행정구역상으로는 순천, 여수, 광양시와 서쪽으로 고흥, 보성군 지역까지 포함된다.

이 지역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내려오면서 산지가 있는 곳도 있으나 순천만 등 해역 가까이로는 넓은 평야를 형성한 곳도 있다. 기온은 연평균 1

4℃내외, 강수량은 1,300~1,400mm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 옛부터 농업도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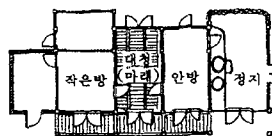
순천 낙안읍성내에는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된 9채의 민가 등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많은 가옥이 있어 이 지역 민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평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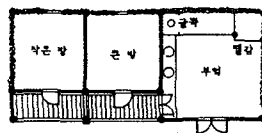
이 지역의 평면형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3실 민가 경우 정지, 안방, 마래순의 가옥 보다는 정지, 안방, 작은방 순<표1. 4실형-I>으로 꾸며진 가옥이 더 많다. 즉 규모가 작은 가옥에서는 안채에 수장공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유형은 전남지방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는 유형은 아니다. 과거 ‘초가삼간’의 대명사 같은 형으로 제주도 등 일부지역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에서는 도서지방만 유독 이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4실인 경우는 정지, 안방, 마래, 작은방 순<표1. 4실형-III>으로 된 가옥이 절대적으로 많다. 한편 작은방이 정지 옆으로 오는 가옥도 있으나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5-6실 규모의 큰 가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영산강 유역과 도서지방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정지방 구성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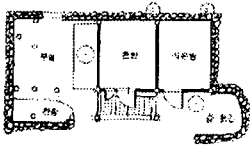
한편 4실 민가의 경우 대부분 마래는 있으나 용도면에서 수장기능(곡칸)이 다소 약해진 듯 보이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거주공간화 되는 가옥도 있다. 마래외에 ‘마루’, ‘대청방’ 등의 호칭도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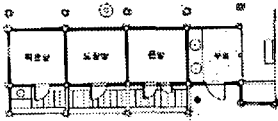
- 고흥군 포두면 고두리 828
- 20C 초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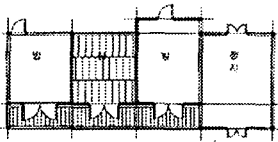
-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 19C 중 건립



· 순천시 낙안면 서
내리 120
· 20C 초 건립



· 순천시 낙안면 서
내리 202
· 19C 말 건립



· 여수시 화양면 831
· 200C 초 건립

그림8. 평면 사례

<사례 연구>

- 서씨 가옥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대래동 496
- 실측조사 : 1992년 (순천대 서치상)

19세기말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이다. 본체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홑집으로서 남향으로 배치된다. 본체의 실 배치를 보면, 좌측으로부터 부엌, 큰방, 대청방, 작은방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2칸째부터 뒷마루를 깔았다.

낮은 토단을 쌓고 둥근 초석 위에 사각형 기둥을 세웠으며, 벽체는 큰방과 작은방, 그리고 뒷간으로 창호가 없는 부분에는 회벽마감한 심벽으로 되어 있으나, 우물마루를 칸 대청방과 부엌 판장문 옆은 판벽으로 막았다. 창호도 부엌과 대청부분에만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 방에는 교살문을 달았는데, 특히 큰방에는 호령창이라는 작은 교살창을 덧붙였다. 지붕은 아까까지도 벗짚을 엮은 초가지붕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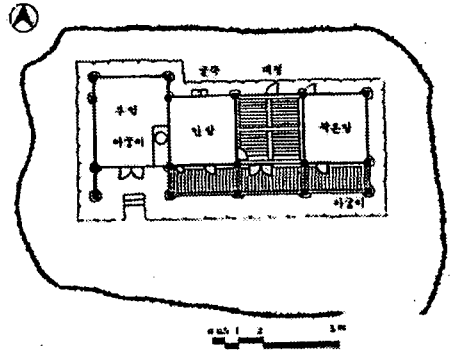


그림9. 전남 순천시 대래동 서씨 가옥

3-4. 지리산권 및 북부지역

(1) 지역 환경

동쪽에는 소백산맥이 있어서 지리산에서 세 갈래로 분기되고 있다. 소백산맥은 전남 동북부에 위치하여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이루어 지리산맥이라고도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부의 노령산맥은 낮은 구릉성 산지로 해안에 면하고 있으나 동부의 소백산맥은 고산지를 이루고 있어 역사적으로 영남지역과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교통·문화교통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산간지역은 아무래도 평지의 발달이 적기 때문에 논경지의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가사경제와 연결되어 민가의 구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본체 내부에서의 수장·공간의 축소, 안마당의 작아짐, 부속채 건립이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례, 화순, 그리고 장흥의 일부지역(유치면 등)은 전남의 대표적 산간지역이다. 특히 구례군은 한반도의 남부를 북동-남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소백산맥의 본줄기상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가 많다.

한편 담양, 장성 등 전남의 북부지역도 구례, 곡성지역과 같은 유형의 평면이 출현하여 주목이 간다. 이 지역 역시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이 600~700m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다만 남쪽으로는 광주 쪽으로 열려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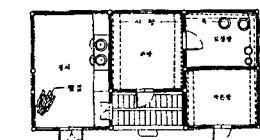
(2) 평면 특성

이 지역의 민가에서 특히 특징이 있는 부분은 본체의 한쪽 측면이 겹겹화되는 형상이다. 예로 정지·큰방·작은방·도장방의 4실 평면에서 도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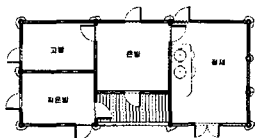
과 작은방이 위·아래로 배치된다. <표1. 4실형-V> 도장방의 출입은 큰방에서, 작은방은 큰방 전면의 작은 툇마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구성이 다른 지역의 완전 '一'자형 개방형식이 아닌 다소 폐쇄된 큰방 중심의 집약형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타입은 태백산맥(영월지역 등)에서부터 소백산맥계(남원·순창·임실·구례 등)를 거쳐 장흥 등 산간지방에까지 보이는 형식이다.

한편 장성군 지역에서는 정지방이 정지 위쪽에 설치된 가옥도 여러채 있어 주목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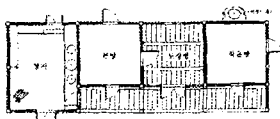
이 지역 민가 모두가 겹집화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보이는 정지, 안방, 도장방(고방, 마래), 작은방 순으로 꾸며진 가옥도 있다. 다만 겹집화된 가옥의 다수 출현에서 이지역 평면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지역 민가에서도 순천권 지역과 같이 정지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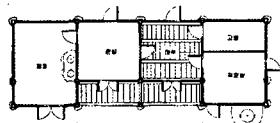
·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02
· 19C 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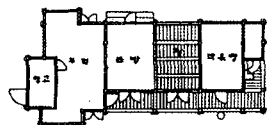
·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 179-1
· 1955년경 건립



·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117(달절마을)
· 1846년 건립



·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 98
· 18C 말 건립



· 담양군 금성면 의추리 355(매곡마을)
· 19C 중 건립

그림 10. 평면 사례

<사례 연구>

- 이씨 가옥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124 (달절마을)
- 실측조사 : 1994년 (목포대 김지민)

19세기말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옥은 달절마을의 맨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1920년경에 이 집으로 이주해 왔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고가였다고 한다.

이씨(조사 당시 70대)가 결혼하였을 당시 큰방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작은방에서는 이씨 내외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안채는 이 마을에서 몸채라고도 부른다. 돌담장으로 둘러친 약 160평 정도의 평탄한 대지에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아래채가 튼 '一'자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인 몸채는 '一'자형 3칸 구조로 우측 1칸은 상·하로 실이 나누어져 도장방과 작은방으로 분리되어 있다. 작은방은 툇마루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죽살문이 설치되어 있고 도장방은 안방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안방 중심형 구조로 되어 있다. 작은방 옆의 추녀 밑으로는 근래에 빨감 등을 저장하기 위한 헛간을 드렸다. 기둥과 도리 등은 모두 약간 흰 원형부재를 표피만 벗긴 채 그대로 썼다.

아래채는 방, 외양간, 헛간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외양간이 중앙에 배치되고 그 전면에 외양정지가 있어 다른 가옥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옥 주위는 반듯하게 돌담장으로 둘러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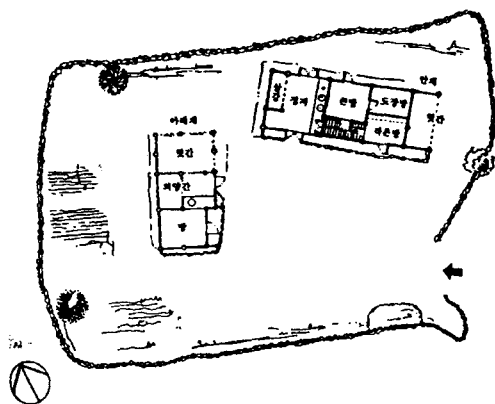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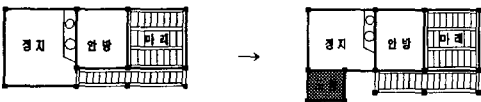
그림 11.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씨 가옥

지금까지 전라남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면형을 분석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전 지역에 고루 보이는 유형이 있는 반면, 어느 지역에서만 보이는 즉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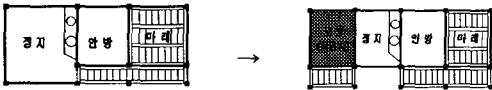
제2장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마래'는 전남지방 민가의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실이다. '3칸 3실'의 작은 규모의 가옥에서도 가장자리 쪽에 이 실이 위치한다. 다른지방은 물론 같은 호남지방인 전북 지역에서조차도 이 같은 형은 보이지 않는다. 즉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며지는 평면형은 전남지방의 보편적인 유형인 동시에 전남지역만의 독특한 평면형이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방 하나인 '3칸 3실'형에 2번째 방(침실)을 꾸밀 때는 지역별로 그림12와 같이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 즉 서해도서 지역에서는 정지 전면 모퉁이에 오거나 또는 정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2번째 방이 꾸며졌다. 남해도서 쪽에서는 정지 전면에 오는 가옥도 있으나 오히려 정지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오는 경우가 절대적이다. 구례 등 산간지역에서는 평면상으로 한 쪽이 겹집화 경향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두 번째 방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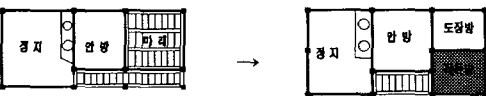
· 서해도서 지역



· 남해도서 지역



· 산간 지역



· 전지역 (서남해도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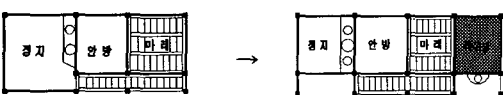


그림12. 2번째 방 위치도

한편 서해와 남해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마래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온다. 즉 표1

의 4실형(Ⅲ) 타입인데 이 유형은 특히 전남 동부권 및 남쪽의 연안 지역에서 많이 보인다.

다음으로 안채에 3번째¹⁰⁾ 방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나 서해도서 및 서남부 평야지대의 다소 규모가 큰 가옥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나주와 무안 등에서 보이는 이 방이 정지방이다.

· 서해 지역



· 서남부 평야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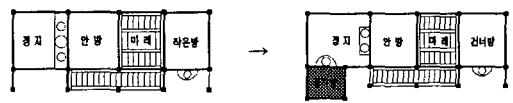


그림13. 3번째 방 위치도

표2는 각 지역별로 평면형의 명칭과 특성, 형성요인 등을 정의 한 것이다. 그림7은 물론 중첩이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즉 특성이 있는 평면형을 표시한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19C경에 전남지방의 서민들이 살았던 집을 평면형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이다. 각 지역별로 고르게 현지 조사하여 얻은 1,000여 채 가까운 방대한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고, 연구는 분포나 지역 특성 등을 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학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방 민가의 평면구성 중에서 가장 돋보이면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실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마래(도장방, 마루방)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방(모방)이다.

마래는 건물의 규모나 형태,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가옥의 안채에 설치되었다. 이 공간은 이 지방의 독특한 주거문화(저장, 조상숭배)를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실이다. 또한 평면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전남지방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실이다.

10) 2번째 방, 3번째 방의 개념은 증축이나 서열 개념이 아니고 집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쪽에 방이 설치되는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표2. 지역별 평면유형 체계

| 내용 유형 | 명칭 | 분포지역 | 평면구성 키워드 | 평면특성 | 형성요인 | 기타 |
|-------|------------|----------------------------------|----------|-----------------------------------|---------------------------------|---------------------------------------|
| I | 서남부 평야형 | 나주, 무안, 함평, 강진 등 | 정지방 | 3번째 방을 정지 앞쪽에 배치 | 영산강유역의 농업중심. 평야지대 | 다양한 평면유형 다양한 규모 (3·4·5칸) |
| II | 서해도서형 | 신안, 진도, 서남해연안 (영광, 함평, 영암, 해남 등) | 마래 | 마래 위쪽에 어떠한 실도 배치안함. 정지쪽으로 방이 모아짐. | 도서성(보수, 격리, 해양성), 민속신앙, 마래를 신성시 | 평면형이 확연히 드러남 |
| III | 남해도서형 | 완도, 흑산도 | 마래 | 모방이 정지 앞이 아닌 측면에 위치 | 도서성(보수, 격리, 해양성), 민속신앙, 마래를 신성시 | 평면형이 확연히 드러남 |
| IV | 남부연안 및 동부형 |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 - | '- '자형 홀집 개방형 | 평야지대 따뜻한 기후 |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전남지역에 고루 분포 3실형(정지+방+방) |
| V | 산간형 | 구례, 곡성, 화순, 담양, 장흥 일부 | 도장방 | 한쪽이 겹집화 (상·하로 실) 뒷마루 발달 미비 | 산간지형 추운기후 | (정지+안방+도장방+작은방)형도 많이 보임 |

· 유형 I ~ V번은 그림 14의 I ~ V번 그림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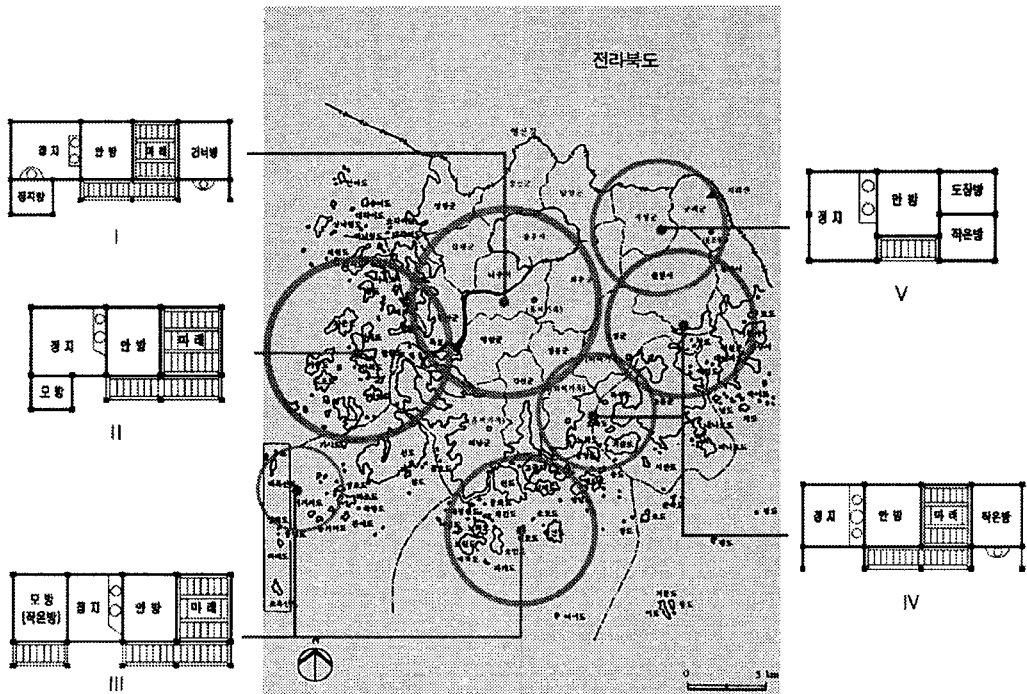


그림 14. 지역별 대표적 평면유형

정지방은 큰방(안방)과 대비되는 정지 앞 모퉁이에 주로 설치되는 제2, 제3의 작은방이다. 이 실은 전남지방에서도 영산강유역의 내륙과 도서지역에서도 서해도서쪽(신안, 진도군 지역)에 많이 보인다.

둘째, 일반적으로 남부지방(전라도) 민가의 안채는 ‘—’자형에 홑집계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가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지방이 전면 퇴주선 앞으로 완전히 벗어나 설치되는 경우는 ‘—’자형도 나온다. 또한 구례 등 산간지역과 서해도서지역의 규모가 큰 가옥(6실)에서는 한쪽이 겹집화 경향을 보이면서 위·아래 2열로 실들이 꾸며진다.

셋째, 같은 전남지방 내에서도 안채의 평면유형이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영산강 유역 등 내륙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건립된 4실 가옥의 경우 정지+큰방+마래+작은방 순으로 꾸며져 있고 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는 정지 앞으로 정지방이 드러진다. 다만 함평, 해남 등 해안 쪽으로 갈 경우 4실 가옥의 경우 마래 옆으로 작은방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지 앞쪽(정지방)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은 서해도서지방 평면형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도서지방 入島祖들의 전 주거지가 연안지역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도서지역 민가에서 제일 돋보이는 특징은 마래 옆(머리 쪽)으로는 어떠한 실도 자리하지 않는 공간적 구조이다.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난다. 마래가 제사공간으로서 상징성과 함께 유교적 위계성이 드러난 구조다. 한편 도서별(지역)로도 특징이 있다. 서해도서(신안, 진도군 지역)에서는 모방이라고 하는 정지방의 발달이 돋보이고 남해도서인 완도군 지역에서는 모방이 정지 측면으로 배치되는 완전한 ‘—’자형이 주류를 이룬다.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도 지역은 남해도서쪽 유형이 많다.

3) 순천 등 전남의 동남부 지역은 정지방이 거의 없다. 완전한 ‘—’자형인 정지+안방+마래+작은방 구성의 평면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3칸3실 구조인 경우 정지+안방+건너방 순으로 안채에 수장공간을 두지 않고 나란히 방 2개를 둔 경우도 많다.

4) 구례와 장흥 등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다소 폐쇄된 집약형인 겹집화 경향의 가옥이 많이 보인다.

즉 중앙의 큰방 옆으로 위쪽에 도장방을 두고 그 아래에 작은방이 설치된다. 물론 곳에 따라 정지+큰방+도장방+작은방 순의 4실 가옥도 보이나 이곳 역시 동남부지역과 같이 정지방은 없다.

본 연구의 후속과제는 구조와 수장, 부속채 등을 포함한 외부공간, 주생활연구 등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가 마무리 될 때 전남지방 민가의 실체가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2. 나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전남대, 1985
3. 김정호, 전남의 마을유래 자료집, 전라남도, 1988
4. 나주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8
5.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 1988
6.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 박물관, 1989
7. 이해준, 신안도서지방의 역사문화적 성격, 도서문화 제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0
8.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1
9. 보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2
10. 순천시의 문화유적, 순천대, 1992
11. 전라남도지(1권), 전라남도, 1993
12.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3
13.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 1993
14.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3
15. 구례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4
16. 장흥 방촌, 장흥군, 1994
17.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 1995
18. 탐진담 수물지역내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8
19. 김지민 외, 전라남도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 김지민, 도서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도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5호, 2005

A Study on the Plan Type of Anchae of Folk Houses in Jeoun-Nam Province

Kim, Ji-min
(Professor, Mokpo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lan type of traditional folk housing in Jeoun-Nam Province. The building time of these houses is mainly from early 19C to early 20C and about 1,000 houses have been investigated.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1. Small house is composed of kitchen, one or two rooms and Marae(the place of storage and sacrificial rite). Big house has one more room and one more storage in comparison with the small house.

Marae and Jeongjibang(a room which is in front of kitchen) are characteristic rooms of folk house in Jeoun-Nam Province.

2. The plan type varies in Jeoun-Nam Province. '—' type is a main type of layout and it is arranged a kitchen, a big room, a Marae and a small room in order. In the big house, jeongjibang(the third room) is added.

3. In the southwestern Island area, no room is arranged beside Marae. Marae has characteristic confucian order because it is the place of sacrificial rite. Therefore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

4. In the mountain area such as Gurae, there are some houses which have two rooms arranged up and down in one side; that is, upside is Marae and downside is small room. This type is called Kyump Jip.

Keywords : Jeoun-Nam Province, Minga(Folk Houses), Plan Type, Marae, Jeongjibang
